학문의 전당 '경희'의 심장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㉓
『중앙도서관❶』

여행 중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가 볼까? 요즘엔 방문객을 위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많은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만큼 도서관은 그 대학을 대표하는 공간이자, 대학이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 도서관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곳은 1968년 6월 문을 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이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의 역사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5월 대학을 인수한 후 부산 동광동에 마련한 교사가 1953년 1월 화재로 전소된 후, 경희는 불과 2개월 만에 동대신동에 새 캠퍼스를 마련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흙과 돌을 나르고, 산허리를 깎아 만든 학교터에 강의실 7개와 강당이 있는 교사 1동, 본부 건물 1동, 도서관 1동을 지었다. 당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 중에 단독 건물로 된 도서관을 갖춘 곳은 우리 대학이 유일했다고 한다.

우선 도서 700권을 구입해 장서를 갖추고, 도서 수집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때는 전쟁 중이다. 국내에선 그것도 어려워 해외 200여 대학에 도서 기증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미국 로렌스대학은 600여 권의 도서를 보내왔고, 그 외에도 책을 기증한 대학이 상당수 있었다. 우리는 답례로 설립자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를 보냈다고 한다.

1954년, 서울 환도 후 본관, 임시교사, 대학원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도서관 건립을 서둘렀다. 당시 명칭은 '임시 도서관'이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세운 등용문과 함께 무척 공들여 지은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한다. 1955년 4월 완공된 임시 도서관은 캠퍼스 서남쪽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지금의 국제교육원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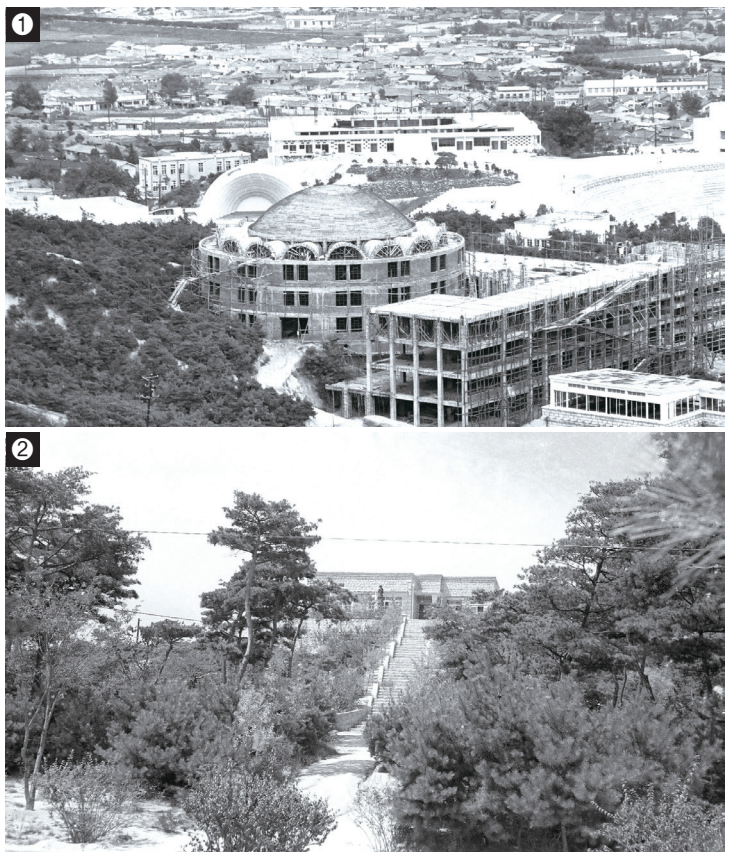
대학이 성장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도서관 이용자도 증가했다. 임시 도서관만으로는 너무 좁았다. 추가로 본관 석조전 옥상에 도서실을 만들어 열람실로 사용했다.

당시 총장이었던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더 이상 종합도서관 건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멋지고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두 차례나 설계를 현상공모 했다. 하지만, 응모작들은 하나같이 구태의연하고 고루했다. 자매교였던 미국 마이애미대학 건축학과에 설계를 의뢰해 보기도 했다. 결과물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긴 했지만, 역시나 기대에 못 미쳤다. 결국 설립자가 직접 설계에 나섰다.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물론 강당, 대사원, 궁전, 박물관의 건축 자료를 참고해, 그가 4개월에 걸쳐 설계한 것이 지금의 중앙도서관이다.

1960년 10월 30일 건설의 첫 삽을 떴다. 공사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총장, 학장들로 조직된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건축 상황을 점검했다. 보직자들이 한 몸이 되어 중앙도서관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착공 후 2년 만에 열람실 일부를 오픈했고, 1964년 4월 건물 외곽을 완성했을 때 1차 준공을 하고 부분 사용을 시작했다. 1968년 6월 17일, 착공 8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보았다. 학문의 전당 '경희'를 상징하는 공간의 탄생이었다.

완공 바로 다음 날, 중앙도서관 원형열람실에서는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 개회식이 열렸다. 34개국 105명의 총장을 포함한 156명의 석학들, 박정희 대통령과 문교부장관, 주한외교사절 등 외빈 300여 명, 국내외 보도진이 원형열람실을 가득 메웠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한국은 어떤 언어를 쓰나. 일본어를 쓰는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 정도였다. 그런 시절, 세계 각국에서 온 총장, 석학들의 눈에 우리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보였을까? 행사장에 들어선 그들의 연이은 감탄사가 그 답을 대신하는 것 같다.



①중앙도서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960년대 서울캠퍼스 풍경 ②1955년 완공된 임시 도서관의 모습, 지금의 국제교육원 자리다.

한반도에 가두기엔 너무 넓었던 발해 강인욱 교수 유라시아 문명으로 다시 읽다

김이현 기자 kimyihyun@khu.ac.kr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발해'는 오랫동안 독자적 문명보다 역사의 귀속 문제로 주목받아 왔다. 우리학교 사학과 강인욱(역사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강인욱의 유라시아 빅히스토리』를 통해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발해를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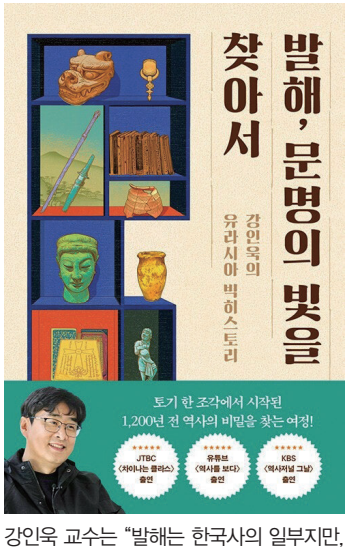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만주 일대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추진하며 발해는 한·중 역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동북공정은 2007년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장백산 문화론', '일대일로' 등 역사 공정은 진화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오가며 발해와 주변 지역의 역사를 연구해 온 강 교수는 "발해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발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 2009년 출간된 『춤추는 발해인』이다. 강 교수는 발해라는 국가 자체를 넘어 발해가 존재했던 지역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번 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책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교수는 동료 박사로부터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몽골 제국의 위구르계 토기가 발해 성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해와 몽골의 위구르 제국과의 교류 흔적을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이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짜릿하게 등골이 오싹해졌다"면서 "그 순간 『춤추는 발해인』의 2탄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강 교수는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지만, 한국사에만 가두기에는 너무나 넓은 세계를 만들었다"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북극을 잇는 발해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강 교수의 답사·발굴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1·2부는 발해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발해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교류한 흔적, 수출이 활발했던 특산품인 인삼, 이순신 장군 신화의 시작점인 녹둔도 등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유라시아 역사를 다룬다. 3부에선 우리 역사에서 소외됐던 말갈과 여진, 거란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리고 4부에는 발해·연해주·조선 등을 연구한 러시아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강 교수는 "1부를 열정으로 썼다면, 4부는 마음으로 썼다"며 "우리 역사에 공헌했지만 가려진 사람들에 대한 찬사를 4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약 2년 전부터 중국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발해와 만주 역사를 국사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AI에 해당 역사에 관한 중국의 논거를 학습시켜, 사용자가 '발해 역사'를 물으면 중국의 논거만을 답하도록 한 것이다. 강 교수는 "중국의 주장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우리가 발해 역사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왜 발해가 한국사일 수밖에 없는 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냈다.

강 교수의 다음 목표는 말갈과 북한 등 우리 역사 속 빈 부분을 채우고 우리 역사를 세계의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민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관점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며 강원도에도 살았던 말갈인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번 책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비어 있어 남한과 만주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북한 지역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해, 문명의 빛을 찾아서』는 한국사의 경계를 넘어 거대한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독자적 문명 체계를 성립한 발해를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일부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다.



강인욱 교수는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지만, 한국사에만 가두기에는 너무나 넓은 세계를 만들었다"며 더 넓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했다.